

간호대학생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미현
군산간호대학교

Effects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Mi-Hyun Jeong
Kunsan College of Nursi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연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J도에 소재하는 396명의 간호대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ANOVA, Scheffé test, Dunnett T3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인성 평균 3.93±0.47점, 간호전문직관 평균 3.83±0.48점, 자기효능감 평균 3.53±0.59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평균 3.63±0.51점이었다.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고,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업참여도, 전공만족도,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 자아통제, 의지 및 능력, 습관 및 자기효능감이었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내에 자아효능감,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as well 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2 to June 8, 2017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and questionnaires from 396 nursing students in J Province.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é test, Dunnett's T3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scores of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ere 3.93±0.47, 3.83±0.48, 3.53±0.59 and 3.63±0.51, respectively.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efficac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The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ere participation in class, satisfaction with major, awareness of self-initiated life, self-control, will and competence, habit, and self-efficacy, nursing professionalism had no significant effect. Based on these findings, programs that develop character,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re necessary for nursing students to promot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Keywords :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Mi-Hyun Jeong(Kunsan College of Nursing)

Tel: +82-63-450-3829 email: jmh@kcn.ac.kr

Received August 7, 2017

Revised (1st August 24, 2017, 2nd September 4, 2017)

Accepted September 15, 2017

Published September 30, 2017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환경은 간호사에게 고도의 전문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진달체계의 변화, 대상자의 요구도 증가 및 새롭게 발생하는 각종 질환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가 습득해야 할 전문지식과 신기술의 지속적 증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재고라는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2012년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시작으로 현재 간호교육기관의 3주기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졸업시점에 맞추어야 할 역량수준과 달성해야 할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기반 교육체계는 간호대학생에게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 능동적으로 학업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와 적합한 학습전략의 실행을 통해 자신이 성취한 학습결과를 평가하는데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다[1]. 특히,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으로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학습자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학습하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다양한 전공교과 지식습득을 위해 단기간 내의 학습 및 이론교육과 임상현장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고시면허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과중한 학업과정으로 인해 학습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기주도학습이 제시된다. 기존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가 높고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높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취사선택을 통해 스스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2]. 즉,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감 및 자율성과 학습동기를 높여 주어 지속적인 자율학습을 가능하게 하며[2],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능력[3]과 학업성취력[1][4]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주로 학습유형, 학습스트레스, 학습동기, 전공만족 및 대학생활만족도 등의 학업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집중되었고[3][5], 각 개인의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적 특성인 인성과의 관련성 및 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및 자기효능감 등과 자기주도학습능력 변인간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태도와 바람직한 덕성을 갖추고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기 위한 요건으로 인성은 중요하다. 인성은 심리적 특성과 인간성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같이 개인이 내면화해야 할 사회의 신념과 문화적 가치를 포함하며, 성품, 인격, 인품이라는 의미로 호환되어 사용되고 있다[6]. 인성의 중요성은 산업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고용주들이 창의성, 융통성, 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등의 인성이 내포한 포괄적 영역에도 관심을 갖고,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적 측면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7].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힘입어 연구들은 개인의 능력과 특정 기술과 같은 인지적 능력 못지않게 인성이 직업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규명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7]. 특히 간호는 사람의 생명과 마주 대하는 직업으로 인간존중의 정신과 태도, 타인존중, 배려, 예절, 성실함 등의 기본적인 자질과 품성이 요구되며, 대상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임상간호사에게 인성은 전문직업관 확립의 기초가 되며, 윤리적 의사결정과 간호사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어 간호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핵심적 역량이다[8]. 따라서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의 함양은 미래 간호사로서 대상자 중심의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역량이므로, 간호교육과정에서 인성적 자질과 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정체성과 소명 의식 등을 포함한 간호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로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게 하는 태도 및 신념과 가치관을 의미한다[9].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높아져서 임상현장에서 행복감이 높아지는 반면,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지 못한 경우 자긍심이 결여되고, 간호업무에 대한 갈등과 이직의도가 높아져서 간호전문직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10]. 이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향후 바람직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육과정과 직업생활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개념이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은 비판적 사고성향[11], 간호사 이미지[12][13],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14] 등이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나, 상관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한편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선택과 지속적 유지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념이다[15].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였을 때 포기보다는 도전적 행동과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16].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적, 외적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습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져도 자기조절학습을 통한 학업성취를 강화하며, 학업상황과 관련된 여러 동기적, 인지적 변수들의 매개변수로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3]. 간호사의 경우에도 자기효능감은 업무의 자신감과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었으며, 간호대학생에게는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도, 대학생생활만족 등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17].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인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대부분 연구들이 이들 변인들 간 상관관계의 분석에 그쳤기에, 본 연구에서는 인성,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효과적인 간호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해보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J도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학과 3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권리보장 및 익명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에 동의한 자로 한정하였다. 비확률 편의모집에 의해 40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한 6부를 제외한 396명(98.5%)의 자료를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는 t-test, ANOVA 분석을 위해 G Power 3.1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크기 .25, 검정력 .95, 유효값 .05로 예측변수 10개를 기준으로 산출된 324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인성

인성은 Lee 등[1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60개 문항, 3개의 하위영역 즉, 인지영역, 정의영역, 행동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영역은 23개 문항(도덕적 인식 4문항, 도덕적 가치를 앎 7문항, 도덕적 추론 3문항, 반성적 의사결정 3문항, 자기이해 3문항,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 3문항), 정의영역은 25문항(양심 5문항, 자기존중 4문항, 감정이입 5문항, 선에 대한 사랑 4문항, 자아통제 2문항, 공동체 의식 5문항), 행동영역은 12문항(의지 및 능력 7문항, 습관 5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 α =.9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97 이었다.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9]이 개발한 도구를 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개 문항,

5개의 하위영역 즉,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처리하여 총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7$ 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이 개발하고 Oh[20]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Oh[2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0$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91$ 이었다.

2.3.4 자기주도학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은 Lee 등[2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3개의 능력요소와 8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요소는 학습계획 능력 20문항(학습욕구진단, 학습목표설정, 학습을 위한 자원파악), 학습실행 능력 15문항(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 학습전략 선택, 학습실행의 지속성), 학습평가 능력 10문항(결과에 대한 노력귀인, 자기성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드물게’ 1점에서 ‘매우 자주’ 5점으로, 부정적 문항은 역산처리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alpha=0.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95$ 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이었다. J도에 소재하는 3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재학생들이었으며, 이들 중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료 한정하여 편의모집 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으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이었고, 작성 즉시 회수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는 t-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정과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자기효능감은 Dunnett T3 검정을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설명력과 각 변인의 하위영역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대상학교의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과정, 예견되는 이익과 잠재적 위험, 연구가 초래할 수 있는 불편 등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료 한정하였다. 피험자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참여자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였고, 자발적인 참여에 근거하였으며,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참여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기밀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익명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식별할 수 없도록 하며, 모든 연구관련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할 것임을 알렸다. 또한 설문작성 도중에라도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이후 다른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 84.3%, 남자 15.7%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2.34±6.11세이고, 연령 중 25세 이하가

85.1%,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84.3%로 가장 많았고, 지난학기 수업에 대한 참여정도는 적극적이었다는 응답이 41.9%, 간호학 전공만족에 대한 정도는 만족이 39.6%,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에 의해서 지원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3.2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및 자기 주도학습능력 정도

간호대학생의 인성수준을 측정한 결과, 전체평균은 3.93±0.47점(범위 1-5점)으로 3개 하위영역은 정의영역(4.06±0.49), 인지영역(3.98±0.51), 행동영역(3.93±0.47)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의 전체평균은 3.83±0.48점(범위 1-5점)으로 5개 하위영역은 간호의 독자성(4.13±1.00), 전문직 자아개념(4.09±0.57), 간호계의 역할(4.01±0.67), 간호의 전문성(3.95±0.65), 사회적 인식(3.24±0.70)의 순이었다.

자기효능감의 전체평균은 3.53±0.59점(범위 1-5점)이었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전체평균은 3.63±0.51점(범위 1-5점)으로 3개의 하위영역 중에 학습평가(3.74±0.56), 학습실행(3.66±0.51), 학습계획(3.54±0.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유의한 차이와 사후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인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수업참여도(F=30.575, $p<.001$), 전공만족도(F=42.915, $p<.001$) 지원동기(F=6.877, $p<.001$)이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수업참여도가 ‘소극적’보다는 ‘매우 적극적’인 경우에 인성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불만족’보다 ‘매우 만족’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주변의 권유’와 ‘국내취업의 용이성’보다 인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성별($t=-1.976$, $p<.05$), 수업참여도(F=15.906, $p<.001$), 전공만족도(F=35.509, $p<.001$), 지원동기(F=8.836, $p<.001$) 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 결과, 수업참여도가 ‘소극적’보다는 ‘매우 적극적’인 경우에 간호전문직관이 높고, 전공만족도는 ‘불만족’보다 ‘매우 만족’에서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인 경우가 ‘주변의 권유’와 ‘국내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96)

Character	Category	n(%)
Gender	Female	334(84.3%)
	Male	62(15.7%)
Age(yr)	≤ 25	337(85.1%)
	≤ 30	28(7.1%)
	≤ 40	16(4.0%)
	≥ 41	15(3.8%)
	M±SD	22.34±6.11
Academic background	Graduate high school	334(84.3%)
	Graduate college	31(7.8%)
	Graduate university	31(7.8%)
Participation in class	Very active	69(17.4%)
	Active	166(41.9%)
	So-so	136(34.3%)
	Passive	23(5.8%)
	Very passive	2(0.5%)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ied	78(19.7%)
	Satisfied	157(39.6%)
	So-so	135(34.1%)
	Dissatisfied	26(6.6%)
Motivation of entrance	High school record	3(0.8%)
	Recommendation of family	91(23.0%)
	High employment in Korea	123(31.1%)
	Aptitude or interest	136(34.3%)
	Working abroad	20(5.1%)
	Others	23(5.8%)

Table 2.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N=396)

Variables(range)		M±SD	
Character (1-5)	Knowing factor	Moral awareness	4.17±0.58
		Knowing moral value	3.90±0.62
		Moral reasoning	4.16±0.66
		Reflective decision making	4.09±0.63
		Self-understanding	3.96±0.66
		Awareness of self-initiated life	3.63±0.80
	Sub-total	3.98±0.51	
	Feeling factor	Conscience	4.20±0.63
		Self-respect	3.77±0.79
		Empathy	4.21±0.56
		Loving the good	4.40±0.64
		Self-control	3.75±0.78
		Community spirit	3.83±0.60
	Sub-total	4.06±0.49	
	Behaving factor	Will and competence	3.69±0.62
Habit		3.37±0.71	
Sub-total		3.93±0.47	
Total		3.93±0.47	
Nursing Professionalism (1-5)	Self concept of the profession	4.09±0.57	
	Social awareness	3.24±0.70	
	Professionalism of nursing	3.95±0.65	
	Roles of nursing service	4.01±0.67	
	Originality of nursing	4.13±1.00	
Total		3.83±0.48	
Self-Efficacy (1-5)	Total		3.53±0.59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1-5)	Learning plan	Learning needs diagnosis	3.51±0.59
		Goal setting	3.62±0.76
		Grasp resources	3.60±0.73
		Sub-total	3.54±0.58
	Learning action	Self-management ability	3.73±0.62
		Selection of learning strategies	3.63±0.64
		Continuity of learning	3.63±0.61
		Sub-total	3.66±0.51
	Learning evaluation	Attribution to the impact of effort	3.80±0.61
		Self-reflection	3.68±0.65
		Sub-total	3.74±0.56
Total		3.63±0.51	

업의 용이성'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성별($t=-2.723, p<.01$), 연령($F=9.047, p<.001$), 수업참여도($F=13.509, p<.01$), 전공만족도($F=24.486, p<.001$), 지원동기($F=8.482, p<.001$)이었고, 사후분석 결과, 대상자의 연령이 25세 이하와 30세 이하가 41세 이상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았고, 수업참여도가 '소극적'보다는 '매우 적극적'인 경우에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불만족'보다는 '매우 만족'인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지원동기는 '주변의 권유'인 경우가 '국내취업의 용이성'과 '적성과 흥미'인 경우 보다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연령($F=6.313, p<.001$), 수업참여도($F=37.853, p<.001$), 전공만족도($F=42.931, p<.001$), 지원동기($F=10.754, p<.001$) 등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사후분석한 결과, 연령은 25세 이하가 41세 이상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았고, 수업참여도가 '소극적'보다는 '매우 적극적'인 경우에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불만족'보다 '매우 만족'인 경우가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으며, 지원동기는 '주변의 권유'가 '국내취업의 용이성', '적성과 흥미', '해외취업의 용이성'보다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in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 (N=396)

Variables	Categories	Character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3.91±0.47	-1.161 (p=.246)	3.81±0.47	-1.976 (p<.05)	3.50±0.58	-2.723 (p<.01)	3.63±0.50	.340 (p=.734)			
	Male	3.99±0.48		3.99±0.48		3.94±0.50		3.72±0.63				
Age(yr)	≤ 25 a	3.91±0.48	2.146 (p=.094)	3.82±0.49	.657 (p=.579)	3.49±0.58	9.047 (p<.001)	3.59±0.51	6.313 (p<.001)			
	≤ 30 b	3.96±0.41		3.76±0.50		3.51±0.53		3.76±0.43				
	≤ 40 c	3.95±0.36		3.94±0.26		3.93±0.47		3.77±0.41				
	≥ 41 d	4.22±0.48		3.91±0.43		4.15±0.62		a<c,d b<d**		4.10±0.56	a<d*	
Academic background	Graduate high school	3.92±0.47	.552 (p=.576)	3.82±0.49	1.088 (p=.338)	3.50±0.59	2.869 (p=.058)	3.60±0.51	2.106 (p=.123)			
	Graduate college	3.97±0.45		3.79±0.44		3.69±0.57		3.69±0.42				
	Graduate university	3.99±0.50		3.94±0.42		3.70±0.63		3.79±0.53				
Participation in class	Very active a	4.30±0.44	30.575 (p<.001)	4.06±0.45	15.906 (p<.001)	3.84±0.64	13.509 (p<.01)	4.05±0.50	37.853 (p<.001)			
	Active b	4.02±0.39		3.91±0.42		3.65±0.53		3.78±0.49				
	So-so c	3.7±0.43		3.68±0.46		3.35±0.49		3.40±0.41				
	Passive d	3.51±0.41		b,c,d,e<a c,d<b*		3.39±0.46		c,d<a c,d<b**		3.08±0.43	b,c,d,e<a c,d<b d<c*	
	Very passive e	3.33±1.04		3.72±0.94		2.85±1.04		2.89±0.94				
Satisfaction with major	Very satisfied a	4.29±0.41	42.915 (p<.001)	4.12±0.42	35.509 (p<.001)	3.84±0.58	24.486 (p<.001)	3.98±0.46	42.931 (p<.001)			
	Satisfied b	3.98±0.40		b,c,d<a		3.92±0.41		b,c,d<a		3.70±0.46	b,c,d<a	
	So-so c	3.76±0.42		c,d<b		3.66±0.45		c,d<b		3.37±0.53	c,d<b	
	Dissatisfied d	3.38±0.48		d<c*		3.29±0.38		d<c*		2.93±0.56	d<c**	2.97±0.40
Motivation of entrance	High school record a	3.56±0.14	6.887 (p<.001)	3.54±0.26	8.836 (p<.001)	3.10±0.19	8.482 (p<.001)	2.91±0.20	10.754 (p<.001)			
	Recommendation of family b	3.80±0.48		3.60±0.48		3.24±0.60		3.38±0.51				
	High employment in Korea c	3.89±0.46		b,c<d*		3.83±0.47		b,c,d*		3.53±0.56	b,c,d**	3.62±0.49
	Aptitude or interest d	4.08±0.45		3.99±0.43		3.72±0.56		3.81±0.47				
	Working abroad e	4.06±0.34		3.93±0.44		3.65±0.57		3.80±0.44				

*Scheffe test, **Dunnnett T3 test

3.4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 연령과의 관계가 양적 상관으로 나타난 것은 학력($r=.456, p<.001$), 수업참여도 ($r=.218, p<.001$), 전공만족도($r=.192, p<.001$), 인성 ($r=.138, p<.001$), 자기효능감($r=.262, p<.001$), 자기주도 학습능력($r=.229, p<.001$)이었고, 학력은 자기효능감 ($r=.113, p<.05$), 자기주도학습능력($r=.103, p<.05$)에서 양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참여도는 전공만족도($r=.404, p<.001$), 인성($r=.486, p<.001$), 간호전문직관 ($r=.363, p<.001$), 자기효능감($r=.399, p<.001$), 자기주도

학습능력($r=.528, p<.001$)에서 양적 상관이었으며, 전공 만족도는 인성($r=.492, p<.001$), 간호전문직관($r=.457, p<.001$), 자기효능감($r=.391, p<.001$), 자기주도학습능력 ($r=.487, p<.001$)에서 양적 상관이었고, 인성은 간호전문 직관($r=.621, p<.001$), 자기효능감($r=.598, p<.001$), 자기 주도학습능력($r=.790, p<.001$), 등의 변수에서, 간호전문 직관은 자기효능감($r=.457, p<.001$)과 자기주도학습능력 ($r=.505, p<.001$), 자기효능감은 자기주도학습능력 ($r=.696, p<.001$)과의 관계가 모두 양적 상관으로 나타 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

Var.	1	2	3	4	5	6	7	8
1	1							
2	.456*** ($<.001$)	1						
3	.218*** ($<.001$)	.052	1					
4	.192*** ($<.001$)	.090	.404*** ($<.001$)	1				
5	.138*** ($<.001$)	.052	.486*** ($<.001$)	.492*** ($<.001$)	1			
6	.048	.054	.363*** ($<.001$)	.457*** ($<.001$)	.621*** ($<.001$)	1		
7	.262*** ($<.001$)	.113* ($<.05$)	.399*** ($<.001$)	.391*** ($<.001$)	.598*** ($<.001$)	.457*** ($<.001$)	1	
8	.229*** ($<.001$)	.103* ($<.05$)	.528*** ($<.001$)	.487*** ($<.001$)	.790*** ($<.001$)	.505*** ($<.001$)	.696*** ($<.001$)	1

*** $p<.001$, ** $p<.01$, * $p<.05$

1. Age, 2. Academic background, 3. Participation in class,
4. Satisfaction with major, 5. Character, 6. Nursing Professionalism,
7. Self-Efficacy, 8.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3.5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각 변인들의 독립적인 설명력을 비교하고 각 변인의 하위영역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Table 5]. 일반적 특성 변인 중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 학력, 수업참여도, 전공만족도를 통제한 제 1모형(통제모형)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 1모형에 인성의 하위요인 3개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제 2모형을 분석하고, 제 2모형에 자기효능감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제 3모형을 분석하고, 제 3모형에 간호전문직관 하위요인 5개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제 4모형을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기에 앞서, 변인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Table 5. Factors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llinearity Statistics		
	β	t	β	t	β	t	β	t	Tolerance	VIF	
constant		15.822***		3.338**		2.404*		3.003**			
General statistice	Age	.075	1.626	.074	2.310*	.028	.937	.028	.908	.621	1.610
	Academic background	.020	.456	.000	-.017	.003	.101	.005	.172	.761	1.313
	Participation in class	.383	8.642***	.093	2.837**	.080	2.623**	.074	2.439*	.639	1.565
	Satisfaction with major	.316	7.189***	.078	2.374*	.069	2.240*	.062	2.006*	.612	1.635
Char- acter	Moral awareness			.096	2.458*	.064	1.734	.075	2.027*	.423	2.363
	Knowing moral value			.006	.136	-.002	-.051	-.019	-.461	.332	3.016
	Moral reasoning			.024	.562	.021	.515	.021	.526	.371	2.695
	Reflective decision making			.025	.629	.041	1.110	.041	1.126	.437	2.288
	Self-understanding			.057	1.435	.065	1.774	.068	1.865	.435	2.298
	Awareness of self-initiated life			.230	6.090***	.198	5.579***	.193	5.483***	.471	2.121
	Conscience			-.019	-.433	-.002	-.050	.005	.133	.364	2.745
	Self-respect			.018	.452	-.054	-1.406	-.068	-1.767	.389	2.572
	Empathy			.025	.621	.011	.284	.001	.027	.388	2.578
	Loving the good			.041	1.000	.036	.940	.030	.786	.408	2.450
	Self-control			.223	5.548***	.199	5.273***	.198	5.273***	.416	2.404
	Community spirit			-.065	-1.671	-.057	-1.583	-.045	-1.227	.430	2.323
	Will and competence			.220	4.629***	.167	3.717***	.156	3.478**	.291	3.432
Habit			.090	2.451*	.097	2.843**	.084	2.433*	.492	2.033	
Self-Efficacy					.260	7.586***	.288	7.962***	.448	2.235	
Nursing Profess- ionism	Self concept of the profession							-.035	-.923	.417	2.398
	Social awareness							-.036	-1.132	.568	1.762
	Professionalism of nursing							.003	.084	.463	2.161
	Roles of nursing service							.111	2.930**	.409	2.445
	Originality of nursing							-.083	-2.781**	.650	1.538
F		58.774***		59.577***		67.937***		55.918***			
R ²		.375		.740		.774		.783			
AdjR ²		.369		.727		.763		.769			
R ² Change		.375		.364		.035		.009			

*** $p<.001$, ** $p<.01$, * $p<.05$

.291~.761로 .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313~3.432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은 2.198로 잔차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을 충족하여 회귀모형 사용은 적합함을 판단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변인으로 한 Model 1의 설명력은 36.9%($R^2=.375$, $p<.001$)였으며, 관련 변인으로 투입한 연령, 학력, 수업참여도, 전공만족도 중 수업참여도($\beta=.383$, $p<.001$)와 전공만족도($\beta=.316$, $p<.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인성 변인을 추가한 Model 2의 설명력은 72.7%($R^2=.740$, $p<.001$)이었으며, 연령($\beta=.074$, $p=.021$), 수업참여도($\beta=.093$, $p=.005$), 전공만족도($\beta=.078$, $p=.018$)와 인성 하위요인 중 도덕적 인식($\beta=.096$, $p=.014$),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beta=.230$, $p<.001$), 자아통제($\beta=.223$, $p<.001$), 의지 및 능력($\beta=.220$, $p<.001$), 습관($\beta=.090$, $p=.015$)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자기효능감 변인을 추가한 Model 3의 설명력은 76.3%($R^2=.774$, $p<.001$)이었으며, 수업참여도($\beta=.080$, $p=.009$), 전공만족도($\beta=.069$, $p=.026$)와 인성 하위요인 중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beta=.198$, $p<.001$), 자아통제($\beta=.199$, $p<.001$), 의지 및 능력($\beta=.167$, $p<.001$), 습관($\beta=.097$, $p=.005$)과 자기효능감($\beta=.260$, $p<.001$)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간호전문직관 변인을 추가한 Model 4의 설명력은 76.9%($R^2=.783$, $p<.001$)이었으며, 수업참여도($\beta=.074$, $p=.015$), 전공만족도($\beta=.062$, $p=.046$)와 인성 하위요인 중 도덕적 인식($\beta=.075$, $p=.043$),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beta=.193$, $p<.001$), 자아통제($\beta=.198$, $p<.001$), 의지 및 능력($\beta=.156$, $p=.001$), 습관($\beta=.084$, $p=.015$)과 자기효능감($\beta=.288$, $p<.001$), 간호전문직관 하위요인 중 간호계의 역할($\beta=.0111$, $p=.004$), 간호의 독자성($\beta=-.083$, $p=.006$)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정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63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 중 학습평가 3.74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습계획 3.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들을 측정된 Kim의 연구[22]에서는 3.34점이고, 학습실행 3.41점, 학습계획 3.28점이었으며, Kim과 Kim의 연구[2]에서는 3.44점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하위영역의 순위는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Kim과 Kim[2]의 대상자는 전공교과에 입문하기 전 주로 교양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학년 학기 초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수동적인 학습태도에 익숙하고 스스로 학습에 대한 경험이 미흡하였기에 오는 결과로 추측되며, Kim의 연구[22]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졸업시점에 도달해서는 교육과정에 익숙해지며, 국가고시면허시험을 앞두었기에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학습실행력이 높아졌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습평가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설문조사가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루어져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성찰과 노력에 대한 평가에 좀 더 주안점을 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 특성은 수업참여도, 전공만족도, 지원동기 등으로 나타나, 간호학과 입학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수업에 적극적일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다는 선행연구[5][22]의 결과를 일관되게 지지하였다. 이는 간호학과 지원시에 높은 취업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한 후 전공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님과 주변의 권유에 의한 지원보다는 본인의 의지를 반영한 전공선택인 경우 학업관리에 적극적일 수 있어, 입학 후에는 대학차원에서 상담관리를 통해 전공만족을 위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있어야 하며,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로 인해 성공적인 학업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인성수준은 5점 만점 중 평균 3.93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 중 정의영역 4.06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동영역 3.9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이나 6점 척도로 간호대학생을 측정된 Sim과 Bang의 연구[23]에서 4.42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인성수준이 다소 높았으며, 하위영역의 순위는 유사한 결과이었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올바른 행동에 대한 의

무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간존중, 양심의 가치 등 정의적인 측면에 대한 의지가 내재해 보인다. 그러나 Sim과 Bang의 연구[23]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행동영역 인성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행동을 통한 실천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학생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수립시 실천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인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수업참여도와 전공만족도 등 이었다. 한편 Park의 연구[24]에 의하면 학교환경체계는 학생들의 인성실천도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며, 이 중 수업참여도와 교수자의 정서적 지지가 유의미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수업참여도와 교수자의 정서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과 연계한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공강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전공교과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어 학교환경에서의 보다 질 높은 인성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 중 평균 3.83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oo와 Lee[12]의 3.76점보다 약간 높았고, Kang[14]의 3.93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영역에 대한 결과로는 간호의 독자성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인식 3.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2] 등에서 사회적 인식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간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확립되었으나,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간호가 갖는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향되고 축소된 인식을 갖고 있어 보인다. 여전히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의사의 보조역할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3D산업(three D types of industry)이라는 용어로 생명존중과 인간애, 배려가 바탕이 된 숭고한 간호의 가치를 힘든 직업의 일환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따라서 간호사 스스로 강한 자긍심을 갖고,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정책 등에 참여하며, 간호전문직단체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은 성별, 수업참여도, 전공만족도, 지원동기 등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선행연구[13]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았고, 간호학의 지원동기가

적성 및 흥미가 맞아서 선택한 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Kang 등의 연구[25]에서는 남학생 3.79점, 여학생 3.82점으로 여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3.94점, 여학생 3.81점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이었다. 이에 최근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남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학과적응을 비롯한 직업가치관과 전문직의 개념 등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전통적으로 여성성이 강조되어 온 간호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병원의 정책과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이슈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향상된 교육과정의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만점에 3.53점이었으며, 성별, 연령, 수업참여도, 전공만족도, 지원동기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된 Kang의 연구[14]에서 3.67점, Kim과 Lee[17]는 3.33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다. 수업참여도, 전공만족도, 지원동기 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차이는 선행연구[14][17]와 동일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있어 행동에 대한 불안감이 낮아지고, 의사결정행위를 촉진시키는 사고가 가능하다고 하였다[26]. 또한 주어진 과제에 대한 책임감으로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소속된 조직에도 이익을 가져다준다[26].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은 예비간호사로서 차후 바람직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새로운 학습모델과 교수·학습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자 노력중이며, 일부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27].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관련요인들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변인간의 강한 양적 상관관계로 확인된 변인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고, 인성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다. 자기효능감과 자기주

도학습능력과의 상관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지만 [4], 인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에 따른 논의는 불가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바람직한 인성수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강화와 관련이 있음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 향후 인성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임상현장의 간호 관리자들 또한 간호사의 외국어 활용능력이나 전문지식 역량보다 인성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28], 인성교육과 실천력 강화는 학업적 성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공적인 직업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성관련 교과목 설강, 매너교육, 봉사활동 참여 등 다양한 인성강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Model 4의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연령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연관성이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었으며, 수업참여도와 전공만족도는 연관성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인성의 하위요인 중 도덕적 인식은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자기효능감이 투입되자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연관성이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가 간호 전문직관이 투입되자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인성의 하위요인 중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 자아통제, 의지 및 능력, 습관은 자기효능감과 간호 전문직관이 투입되자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연관성이 지속되었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요인 중 간호계의 역할과 간호의 독자성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관련요인들의 하위요인 간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간호전문직관은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에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Martimianakis 등[29]에 의하면 전문직관의 특성은 누군가에 의해 학습되기보다는 내재적인 사회적, 제도적, 역사적, 문화적인 기대감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조화되며, 개인의 특성과 행동으로 감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의식구조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긍정적인 시각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동반되

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인 경우 임상실습과정 동안 선배간호사들의 전문직관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12], 간호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며, 학생들을 대할 시에는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인성의 하위영역과 자기효능감의 변인들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과정과 인성적 특성의 두 요소의 결합이라고 제시하며, 자기주도적 학습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3][30]를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끝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관련 변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으나 [5][22],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성의 하위영역과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확인 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과 교육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궁극적으로는 간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연령, 학력, 수업참여도, 전공만족도, 인성, 간호전문직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강한 양적 상관적 관계는 자기효능감과 인성수준으로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았고, 인성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영향요인은 수업참여도, 전공만족도, 주도적 삶에 대한 인식, 자아통제, 의지 및 능력, 습관 및 자기효능감 등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변인들을 포함한 여러 변인들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관한 경로모형분석을 실시하여 다체계적인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인성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업적 성취 및 향후 전문직간호인의 핵심역량과도 연계될 수 있어,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K. S. Baik,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1, pp. 77-95, 2012.
- [2] Y. A. Kim, Y. H. Kim, "Factors Influenci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Introductory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9, pp. 459-471,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9.53>
- [3] M. J. Sim, H. S. Oh, "Influence of Self 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9, pp. 459-471, 2016.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6.328>
- [4] D. Magnani, R. Di Lorenzo, A. Bari, S. Pozzi, C. Del Giovane, P. Ferri, "The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evaluation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 Italian survey", *Professioni Infermieristiche*, vol. 67, no. 1, pp. 55-61, 2014.
- [5] Y. J. Kim, H. N. Yoo, M. J. Park,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61-270,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0.261>
- [6] S. Y. Chun, W. J. Kim, K. Y. Sung, I. H. Jeong, S. A. Kim, "A study of Establishment of humanity education vision and action plan, Policy study for establishing humanity education vis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12.
- [7] J. H. Lee, "Contextu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n-cognitive abilities and job posi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4, no. 2, pp. 209-241, 2014.
- [8] D. Weis, M. 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 32, no. 2, pp. 201-204, 2000.
- [9]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 [10] M. H. Nam, Y. C. Kwon,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dex of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9, no. 3, pp. 329-339, 2013.
DOI: <http://dx.doi.org/10.1111/jkana.2013.19.3.329>
- [11] H. S. Kang, Y. S. Kang, Y. M.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tendency, ego-resil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grad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4, pp. 219-229,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4.14>
- [12] H. J. Koo, Y. S. Lee, "Correlation between nurse image, bioethical consciousness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356-7366,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1.798>
- [13] J. A. Seong, E. Y. Yeom, E. Y. S. 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1, pp. 798-809, 2014.
- [14] H. S. Kang, "Path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7.
- [15]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91-215, 1997.
- [16] R. S. Lazarus,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 [17]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44-254,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44>
- [18] Y. S. Lee, H. Y. Kang, S. J. Kim,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 31, pp. 261-282, 2013.
- [19] M. Sherer, J. Maddux, S.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R. Rogers, "The self-efficacy: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no. 1, pp. 663-671, 1982.
- [20] H. S. Oh,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 Women with Arthrit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3, no. 4, pp. 617-630, 1993.
- [21] S. J. Lee, Y. K. J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Development of Measuring Tools for Life Capability: Focusing on Communication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Self - Directed Learning Ability",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22] S. O. Kim,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un-Yang University, 2017.
- [23] S. S. Sim,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2, pp. 634-64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634>
- [24] I. S. Park, "Reconsideration of Character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shin Women's University, 2017.
- [25] K. J. Kang, S. J. Yu, H. M. Seo, M. S. Park, M. Yu, Y. R. Chae, D. H. Choi,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ism in Male and Female Student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491-501,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491>
- [26] W. Lauder, R. Watson, K. Topping, K. Holland, M. Johnson, M. Porter, M. Roxburgh, A. Behr, "An evaluation of fitness for practice curricula: self-efficacy, support and self-reported competence in preregistration student nurses and midwiv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17, no. 14, pp. 1858-1867, 2008.
DOI: [10.1111/j.1365-2702.2007.02223.x](http://dx.doi.org/10.1111/j.1365-2702.2007.02223.x).
- [27] S. I. Ryu, A. K. Kim, "The Effects of Bloom's Mastery Learning Model o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Satisfaction, and Nursing Skills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7, no. 2, pp. 499-508, 2017.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7.17.02.499>
- [28] S. D. Kim,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n Nursing Core Competency of Nurses & Nurse Managers in a Community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6, pp. 2844-2851,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6.2844>
- [29] M. A. Martimianakis, J. M. Manite, B. D. Hodges, "Sociological interpretations of professionalism", Medical Education, vol. 43, pp. 829-837, 2009.
- [30] B. J. Zimmerman,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pp. 82-91, 2000.

정 미 현(Mil-Hyun Jeong)

[정회원]



- 2001년 3월 ~ 2010년 3월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2010년 9월 ~ 현재 : 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통합 시뮬레이션 간호실습, 간호영어